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The Poor Children's Status and Its Investigation

장혜자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Jang, Hye Ja
Education Center of Educare Teacher
Attached to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oor children are a field of causing of various issues and become a subject of sympathy, concern and anger, against adult's poor such as sleeper outdoors and unemployed to be made a subject of discussion.

This study has theoretically investigated the poverty concept, family trait around poor children. And also for understanding the above status, poverty circumstances have been focused children family and shelter - care childre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of children head was formed with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It was reported that solo families were 26.4% and living together families with relatives were 64.7%. As status of producing causes, parents death was shown the most rate as 49% and abscondence or missing was 31.9%.

Second, In the shelter - care aspect, the highest case is a parents - divorce with 42.5%, while children - head case is just shown 0.5%.

Therefore, in a child right viewpoint, it needs more systematical/long-range study on children poverty, and some policies for protecting the poverty-children must be established in social policy.

Key Words : Poor children, Children family, shelter - care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Hye Ja Jang
Tel. 043)261 - 3423 / Fax. 043)275 - 7618
E - mail : jsunnyj@hanmail.net
cbnuedu@trut.chungbuk.ac.kr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아동은 발달적으로 혼자 살아가기 힘든 존재로 아동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가정 및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삶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태어나 가정이라는 최초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가정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의 제반 상황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생활을 이끌어 가게 된다. 또한 아동들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이 되는 가정은 사회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때 문제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빈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던 현상이다. 빈곤의 구분 기준이나 발생원인, 빈곤이 지니는 의미 등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정치, 경제, 사회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빈곤에 대한 개념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의미했다면, 오늘날에 이르러 '필요속의 빈곤' 즉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보편화되면서 빈곤은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교육, 보건,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영모, 1990; 백정재, 1996. 재인용).

우리나라의 도시빈곤 형성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과 전쟁 후의 개발로 인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이 계기가 되었다. 도시로 이동한 이들은 무허가 주택촌을 형성하였으며, 또 낮은 임금과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불가능하여, 계속적인 하층직업에 종사하며 도시빈민으로서 세대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도시 빈곤으로 인해 특수한 가족문화를 공유하며 일반가족이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족들간에는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빈번한 학대 및 부의 권위주의, 가족단합의 강조들을 보였다. 이러한 문화속에서 생활하

는 성원들은 운명주의, 열등감, 현실지향주의, 사회적 불신 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고(박철연, 1992)하고 있다.

빈곤가정이 지니는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문제, 가족관계문제, 심리적 문제 등은 경제적 불충분 상태에서 파생되는 빈곤가정의 제 불만 요인으로 영향을 주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즉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아동의 미취학 및 취학중단, 학업부진 및 부적응 행동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가져오며, 또한 부모와 가족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약한 초자아의 발달, 통제능력의 결여, 회의적 성격, 적대감 등 복합적인 사회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빈곤아동은 부모들의 생업으로 함께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 열악한 환경속에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아동의 부적절한 생활태도에 대한 시정이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교육의 기회가 적고, 공식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결여되어 그들의 학업부진과 사회성 부족, 긍정적이지 못한 다중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빈곤한 문화를 공유하게 되어 그것이 생활속에 정착되고 지속되며 또한 세습되기도 한다.

빈곤의 세대전승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빈곤에서의 탈피는 주요한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교기관이나 사회봉사 단체도 공부방 운영이나 구호활동을 통해 각자의 방식대로 빈민과 아동을 돕고 있다. 그럼에도 빈곤층은 계속 발생되고 존재하고 있으며, 빈곤한 아동들의 생활태도에 부정적 영향은 계속 미치고 있다(권복순, 1998).

빈곤한 아동은 여러가지 쟁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 노숙자, 실업자라는 성인들의 빈곤과는 달리 동정과 관심과 분노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아동들은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빈곤의 피해자이며, 책임자가 아닌 것이다.

“아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초석이기에 때

문에 아동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정책적 입장이 간혹 표명되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아동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연구자료의 축적은 가장 미흡한 상태로 그들을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대두되어야 할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지원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명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실질적 자료는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환경속에 있는 빈곤의 개념과 빈곤한 아동들의 특성 및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 빈곤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고찰한 후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빈곤 환경을 살펴보고,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육의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빈곤한 아동들을 위한 개인 및 정부 기타 사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발생과 생활현황은 어떠한가?
- 2) 요보호 수요 및 시설아동의 발생과 생활현황은 어떠한가?

II. 빈곤의 관련연구 고찰

1. 빈곤층의 특징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빈곤의 양상과 빈곤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다.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한 사회에서조차도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국토개발연구, 1989;

백정재, 1996, 재인용)고 하였다.

빈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주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적 자원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분배에서의 불평등, 심리적 차원에서의 박탈 및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행정적·법적 빈곤 그리고 사회·문화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욕구 - 음식, 주거, 의복 - 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화의 결핍상태를 의미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상태로서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을 빈곤하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정의 방법에는 생활수준이나 최저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즉 빈곤의 개념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대적 위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국토개발연구원, 1989; 백정재, 1996, 재인용).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재화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는 한 빈곤층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고, 이 개념하에서 빈곤선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여긴다.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분류한다. 즉 건강,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Townsend, 1970).

다음으로 빈곤의 법적·행정적 개념은 생활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사회보장적 차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개념으로 빈곤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빈곤을 단순히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선의 개념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박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의 전반적인 상대적 결핍상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권오훈, 1991).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무유산, 남편의 사망, 불구, 질병 등의 가족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이 실업, 저교육 등의 사회적 요인을, 나머지는 무능, 노령 등 개인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빈곤의 요인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모, 1986). 빈곤의 복합요인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라 절대적 빈곤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해도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이 갈등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인 물질의 결핍뿐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받을 기회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심리적 박탈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빈곤과 아동

인류의 긴 역사를 볼 때 빈곤현상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빈곤현상의 양상과 사회·경제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며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국토개발원, 1993; 권복순, 1998 재인용). 빈곤한 아동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한 아동의 인지적 특성

아동은 의, 식, 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갖고 아동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건강과 교육, 안정된 가정환경 등이 필요하다. 빈곤한 가정의 부모들은 사회적 지지를 위한 능력이나 동기부여가 저조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이나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한 아동의 경우는 일차적인 욕구의 충족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가능성인 발전성과 지속성이 저하되며 정서적 안정과 창조성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의 일반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의 IQ 및 표준화 지능검사를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중류층 아동에 비해 빈곤한 아동이 유의하게 낮은 IQ를 보이고 있다. IQ 점수가 낮은 빈곤한 아동들은 Piaget가 기술한 인지발달 계열을 더 천천

히 거쳐간다고 한다. 빈곤한 아동들은 IQ 및 학습상황에 필요한 논리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개념화, 추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빈곤한 아동이 더 낮을 뿐 아니라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도 낮으며 그러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더 많고, 다음 세대까지 그러한 주기를 계속한다고 하였다. 가정의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충분한 영양에서처럼 직접적인 것과 부모가 아동을 다루는 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것이 있다. 그러한 두 가지 효과는 실로 매우 크다. 이러한 현상들은 빈곤한 아동들에게 언어적 발달의 저조를 갖게 하며 이것은 빈곤가정 아동의 언어적 결핍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명순, 1985; 백정재, 1996. 재인용).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중류층 아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아동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분석적 반응이 증가하며, 관계적 유목화가 감소함에 따라 상위관계 유목화가 크게 증가하나, 빈곤한 아동에게서는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상황에서 필요한 논리적 측면이 계속 낮은 수준의 개념화, 추상화 단계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계층간 지능의 격차도 종래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nes, 1984). Havighust(1964)에 의하면, 가난한 아동들은 열등한 청각적·시각적 식별을 나타내고 시간이나 수, 그리고 다른 개념들에 관해서도 더 낮은 판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열등이란 눈, 귀, 뇌의 신체적 결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기, 듣기, 생각하는 열등한 습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규환, 1978; 이은주, 이재연, 1995).

(2) 빈곤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

빈곤층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특징들을 보면, 빈곤층 아동들은 "성취동기"가 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Rosen, 1956; 백정재, 1996. 재인용), 비난과 승인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빈곤층 아동들은 물질적 보수 즉,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과제를 더 빨

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빈곤층 아동들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초기 읽기 상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학업수행시에 광범위한 부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아동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려 한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얼굴 표정에 나타난 정서가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특성이 그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또한 집단 응집력이 요구되고 사회적 상징, 권위에 무조건적 반응을 하며, 부모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공격적, 파괴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다.

심한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5~10세 아동들은 화를 내는 빈도와 호전적인 성향, 부정적, 공격적인 행동경향이 연령에 따라 증가되었다(Elder G., Liker, J., & Cross, C., 1984). 즉,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빈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빈곤층 남아들은 중·상류 남아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빈곤층 여아들은 중·상류층 보다 더 많은 어머니의 지지를 받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lder, 1979).

따라서 빈곤층 아동들은 사회·정서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경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낮은 사회·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한 아동이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발달적 특성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상류 계층의 아동들은 부모의 과도한 성취지향적 기대와 압박감으로 인해 심한 갈등과 스트레

스를 받는 데 반해 빈곤한 계층의 아동들은 가족 내에서 보다 친근하고 애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며, 보다 실제적인 사회적 적응기술을 빨리 터득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Cole, 1980)고 하였다.

3) 빈곤층 부모의 특성

빈곤층 부모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들이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 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보다 적게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Wilson, 1974).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계층보다 지지적이고 민감한 부모역할의 수행능력이 적어 아동양육에서 아동이 복종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고 한다. 빈곤층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층 어머니의 특성

빈곤한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양육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어머니는 아동을 보호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또 문제상황에서 아동과 논의를 거의 하지 않으며,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주, 이재연, 1995).

Davis, Garner와 Garner(1961)의 연구에 의하면, 하류층의 어머니들은 아동들이 귀찮게 하지 않는 한 아동을 자부심과 애정의 관점에서 보며, 아동과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빈곤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호적이고 자극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더 시키며 책임감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rockenberg, 1987).

한편 빈곤층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강하므로 보다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Conger와 동료들(1984)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와 아동을 조사했는데, 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은 낮은 스킵레스를 경험한 어머니들과 비교해 볼 때 아동에게 긍정적 행동(포용, 칭찬, 지지적

인 말)을 더 적게 하고 부정적 행동(협박, 저속한 말, 때리기)을 보다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과 정서적 어려움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와 위협적이고 강제적인 처벌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부모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Patterson, 1986).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다고 보고한(Lonfellow, C., Zerkowitz, P., & Saunders, E. 1982)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아동의 의존적 요구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나타났다. 즉, 그들은 아동들에게 더 많이 소리치고 때리며 논리적인 해결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동을 가르칠 때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 빈곤층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는 형벌의 상징으로 되어 아동들이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빈곤층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는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빈곤층 아버지가 포함된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 작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이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매우 드물다.

Liebow(1969)는 빈곤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버지의 정서적 어려움이 죄의식과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아동에게 남성 역할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부모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빈곤층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지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oles, 1971 ; Loeff, 1971). 그러나 빈곤층 아버지들은 자아감의 상실을 줄이기 위해 아동과 심리적 거리감을 두며, 중·상류층 아버지들보다 아동에게 더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ebow, 1967). 이러한 부정적인 아버지 행동과, 가족 결속력의 약화, 경제적 결핍의 장기간 노출, 그리고 자기 비하감을 조장하는 인지적 기술의 제한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손상을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빈곤한 부모들의 약한 자극통제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예민성은 아동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편파적인 경향을 보였다(Costin, 1974 ;

이은주, 1995. 재인용).

부모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은 신경과민, 적대감, 우울감이 높으며, 아동에 대해서 처벌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1979 ; Elder et al., 1984, 1985 ; Lempers, Clark - Lempers, & Simons, 1989). 경제적으로 박탈된 부모들은 부모 역할 수용이 더 어렵고, 심리적 어려움을 보고하지 않은 부모들보다 경제적·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과 더 빈번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빈곤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호적이고 자극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더 시키며 책임감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rockenberg, 198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 가정어지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정서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 아버지 보다 특히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부적절한 정서 수준과 이에 대한 결과로 야기되는 가족갈등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빈곤층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능 발달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과 관련한 빈곤의 사회적 현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60 - 70년대의 최대과제는 빈곤퇴치였지만 현재의 최대과제는 경제위기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성인의 사회속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는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빈곤한 아동들 중에서 성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요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에 관한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 가장의 증대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발생원인은 과거 부모 사망이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혼, 가출, 재혼 등의 가족문제가 주 원인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 재혼 등 결손가정으로 인한 위기 가정을 안정된 가정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가족해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말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가구는 8,602세대 15,118명으로 이 숫자는 85년 후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소녀 단독세대가 26.4%, 친척과 동거 64.7%(할아버지, 할머니 동거 38.6%)로 나타났다(아동복지편람, 1995).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그들에게 떠넘겨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소아동의 증가 및 입소아동의 권리

대부분의 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생활보장권, 교육권, 안전보호권 등은 보장되고 있으나, 현행 입소조치와 보호조치에 있어서 아동은 물론 보호자의 권리(자기결정권, 참여권)가 침해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권위에 의해 아동의 입소·보호가 결정되고, 보호자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반영될 뿐 아동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같이 아동이 자신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표현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입·비준한 UN의 아동권리국제협약(UN, 1989)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소아동 대상 백신임상실험(1997 - 1998, 2월)은 입소아동들의 법적인 인격과 보호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친권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아원 아기들의 임상실험이 시설장(친권 대리행사)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은 적법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떠나서 윤리성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더구나 IMF 사태 이후 가정해체로 인한 입소아동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입소아동의 세심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아동유기

최근 들어 입소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가족문제에서 발생한 아동들이다. 요즘은 순수한 고아는 거의 없으며, 시대의 병폐에서 온 문제로 즉 부모이혼, 부모가출, 아동학대, 방치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들인 것이다. 이제는 아동의 보호보다는 그 아동의 부모들을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원과 연고자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아동양육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IMF 사태도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동을 고아로 만드는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원 아동의 50% 이상이 진정한 고아가 아니라 부모문제를 안고 시설에 들어온 아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가정 안정을 1차적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을 가정 대신 적합한 양육환경으로 이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발달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제외한다는 것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을 친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목적을 두어 사회와 국가가 함께 참여한다면 가정해체의 예방, 가정의 재결합에 있어 긍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Ⅲ.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실태

1.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증대

1)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현황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발생원인은 과거 부모 사망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혼, 가출, 재혼 등의 가족문제가 주 원인으로 점차 변

〈표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세대수	세대원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985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89	6,029	13,233	450	3,749	3,814	1,632	3,588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8,107	15,118	124	2,914	5,261	4,392	2,427
1996	8,849	16,001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출처 : 보건복지부(1997)

해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은 크게 시설보호사업과 아동건전육성사업이다. 이중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은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부모가 없거나 또는 노동력과 생활능력이 없는 직계 혈족(또는 방계혈족)을 모시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결손·결함세대로서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한다. 이 사업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985년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0명이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1997년에는 9,544세대에 16,547명이며, 연도별로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이 전체의 34%로서 이들을 세대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약 2/3 정도)의 가정들은 만 15세 이하의 아동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아동복지사업지침, 1998). 1998년도 아동복지 지침에서 세대주의 연령이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단독세대를 지정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있는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구의 발생 원인별 현황
소년·소녀가장으로 된 세대의 발생 원인별 현황은 <표 2>에 나와 있다.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발생 원인은 가정 및 주변환경의 악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1996년 말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가구는 8,602세대 15,118명으로 이 숫자는 85년 후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소녀 단독세대가 26.4%, 친척과 동거 64.7%(할아버지, 할머니 동거 38.6%)로 나타났다.

1996년을 예로 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발생이 49%이며,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이 31.9%이며 그 다음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이들은 미성년가정이 된 것이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수의 이들 부모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데 있다.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다소 안정됐던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의 증가를 예측하게 한다.

3)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주거실태 현황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발생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친척(69.3%), 그리고 비혈연가구(4.6%)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 이상이 조부모와 살고 있다.

<표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발생 원인별 현황

연도별	세대수	부모 사망	심신장애	가출행불	이혼재혼	노령	복역 등 기타
1991	6,902 (13,985)	3,455	389	1,859	1,016	30	153
1992	7,089 (14,081)	3,409	375	1,999	1,076	26	204
1993	7,322 (14,293)	3,418	416	2,107	1,146	17	218
1994	7,540 (14,372)	3,580	386	2,392	896	18	268
1995	8,107 (15,118)	4,222	404	2,414	679	14	374
1996	8,849 (16,001)	4,345	451	2,825	865	10	353

주: ()는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전체가족수, 단위는 세대임
 자료: 보건복지부(1997)

<표 3>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주거실태별 현황('96. 12. 31)

세대수	자가	전세	월세	친지	영구임대	기타
8,849 (100%)	1,446 (16.5)	519 (5.8)	647 (7.3)	4,455 (50.0)	1,722 (19.4)	40 (0.4)

출처: 보건복지부 (단위는 세대)

문제는 소년·소녀가장가구의 26.4%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세대이며, 이중 72.4%가 2명 이하이며, 22.0%는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다(노혜련,1997). 즉 약6%인 1000명 가량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지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의 주거형태는 1996년말 친척 또는 친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영구임대(19.4%), 자가(16.5%)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약 20%에 가까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1992

년 조사시 90% 이상이 거주지에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3년이후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정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꾸준한 건의를 하였고(문선화, 1993; 1995),정부의 지원도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요보호 수요 및 시설 소요량의 현황

- 1) 요보호 대상아동 및 시설수요 추계
 보호수요의 추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표 4> 요보호대상 아동 및 시설수요 추계

(단위: 천명, 개소)

구분	1996	1997
아동수	1,031	1,041
시설수	33,201	33,537

출처: 아동복지편람(1997)

〈표 5〉 요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990(A)	1993(B)	1996. 9(C)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a (B - A) × 1/3	b (C - B) × 1/3	
보육시설	1,919	5,490	11,380	62.0	35.8	48.9
보육아동	48,000	153,270	386,094	73.1	50.6	61.9

출처 : 아동복지편람(1997)

통계자료(장래 인구추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모의 적생아수, 보육요구 비율 56.4%)결과를 토대로 보육대상 아동을 추계하고 있다. 현재 가정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백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3만3천여 개소의 보육시설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추계를 보면 <표 4>와 같다.

2) 요보육 시설 및 보육아동

요보육시설은 1990년말 1천 9백 19개소에서 1996년 9월말 1만 1천 3백 80개소로 6년간 5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요보육아동은 1990년말 4만8천명에서 1996년 9월말 38만6천명으로 4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보육수요 추계대비 보육률은 38.6%로서 보육시설은 절반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3) 시설아동들의 입소원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중 '86 - '90년에 입소한 아동이 32.9%, '91년 이후에 입소한 경우가 55.2%이며, 특히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86 - '90년에 입소한 아동이 39.2%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아동들의 입소원인을 <표 6>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아동들의 입소원인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가 4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아인 경우가 22.7%,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13.5%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서 입소한 경우는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별로 살펴 볼 때도 부모의 이혼으로 입소한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영아시설의 경우가 54.5%로 가장 높았다. 영아시설의 경

〈표 6〉 시설종류별 아동의 입소원인

(단위 : 명)

구 분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기아	39.7	20.7	35.9	1.6	9.0	36.0	2.5	22.9
미아	0.9	5.8	1.2	7.2	13.2	36.0	2.5	5.0
부모사망	0.3	7.2	2.0	6.2	26.3	0.8	3.2	6.2
부모생존, 이혼	54.5	41.4	50.1	31.2	29.3	53.2	10.8	42.5
부 死 모 生	2.9	16.0	6.1	11.5	12.6	1.1	1.8	13.5
모 死 부 生	1.1	6.5	2.6	5.6	7.2	3.6	2.2	5.6
과양	0.3	0.9	0.8	0.3	-	1.7	-	0.8
소년가장	0.1	0.5	-	2.4	2.4	-	0.4	0.5
아동자신의 문제	0.2	1.0	1.3	34.0	-	2.5	76.6	3.0
계 (N)	100.0 (1,258)	100.0 (12,811)	100.0 (1,342)	100 (321)	100.0 (167)	100.0 (361)	100.0 (279)	100.0 (16,539)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7〉 복지시설의 종별 및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 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합 계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당
1970	74	7,636	430	42,155	19	1,710	-	-	-	-	523	51,501	98
1980	34	2,477	253	20,908	16	1,246	-	-	-	-	303	24,631	81
1990	38	2,388	223	20,147	7	444	7	415	3	56	278	23,450	84
1992	38	2,240	219	18,046	8	430	8	483	5	94	278	21,293	77
1994	37	2,210	217	16,079	7	321	7	565	7	129	275	19,214	70
1995	36	2,128	215	15,015	5	231	6	481	7	139	269	18,074	67
1996	28	1,624	213	14,302	6	250	6	462	11	197	273	17,319	63
1997	26	1,589	214	13,873	6	245	6	393	11	198	274	16,936	62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1998)

우 이혼이나 기아로 인한 입소원인은 94.2%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시설은 62.1%, 영육아시설의 경우는 86.0%로 나타났다.

과거 고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이혼이나 빈곤등의 가족 해체로 인한 입소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시설 요보호아동의 연도별 현황

1970년대에는 시설수 523개소, 아동수는 51,501명이었으며 1980년도에는 시설수 303개소로 220개소가 줄어들었고, 아동수는 약 27,000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설의 종별 및 연도별 현황을 보면 <표 7>과 같다.

1980년부터 1990년 사이 10년 동안 시설수는 25개가 줄어든 반면, 아동의 수는 1980년의 24,631명에서 1990년에는 23,45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수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설아동수는 해마다 1,000명씩 감소하여 1990년 23,450명에서 1997년 16,936명으로 감소한데 비하여 시설수는 278개소에서 274개소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

달시키며 성장할 권리를 갖고 사회나 성인들이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아동들이 가족만으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사회가 이를 보충,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이 교육중심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보호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전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가정이라는 기본 사회 단위의 성장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사회 및 기업체에서 복지사업의 계획을 구체화시켜 그들에게 기본생활의 장을 마련하여 주고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주므로써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교육 지침처럼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방법으로 빈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만 15세 이하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단독세대가 26.4%, 친척과 동거하는 세대가 64.7%로 보고되었다. 발생원인

의 현황을 보면 부모의 사망이 49%로 가장 많았고, 가출이나 행방불명이 31.9%를 보였다. 또한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50%, 영구임대가 19.4%의 순을 보였다(보건복지부, 1997).

두 번째, 시설에서 요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백만여명에 이르고 3만3천여 개소의 보육시설이 소요되어야 한다(아동복지편람, 1997). 부모는 생존하지만 이혼등의 이유로 입소한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13.5%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서 입소한 경우는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별로는 영아시설의 경우가 54.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비선택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가정의 어려움이 또 다른 사회안에서 빈곤을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빈곤탈피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물질적 원조는 빈곤의 재생산과 세대전승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생활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아동의 사회심리적 태도와 생활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교육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정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기관의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고, 효과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권복순, 1998)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아동복지는 전반적인 복지, 권리, 보육, 입양, 시설, 유해환경등 실로 방대한 주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빈곤과 부모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 유해환경, 학대, 유기 등의 상황속에 노출되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복지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아동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우리사회에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가족정책의 요소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빈곤

한 아동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한 아동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며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온 사회가 부담해야 될 하나의 주요한 차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행복한 개개인으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빈곤아동, 소년·소녀가장, 요보육 시설아동

참 고 문 헌

- 강명순(1985). 빈민여성 빈민아동. 도서출판 아침.
- 국토개발연구원(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권오훈(1991). 도시빈곤층의 형성과 사회 구조적 특성.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 권복순(1998). 빈곤가정아동의 생활태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통권31호. 1-27.
- 김영모(1986). 한국사회복지 제문제.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 김영모(1990). 한국빈곤 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용석 외(1995). 아동복지 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식(1998). 한국 아동복지의 현주소, 한·영아동복지 세미나 pp. 60 - 71.
- 박순일(1995). 가족에서의 물질적 생활 보호
- 박철연(1992).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백정재(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1997).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안내. 보건복지부.
- 이규환(1987). 사회개발과 교육의 민주화. 서울 : 한울
- 이 병(1996).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수 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이재연(1995).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아동학회지 17호, 2권 pp. 195 - 206.
- 이지수(1993). 한국 빈곤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접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정(1998).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영 아동복지 세미나 pp. 83 - 98.
- 정주영(1995). 아동복지사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정문출판사.
-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4(2).
- 조홍식(1991). 도시빈곤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희숙 외(1999).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pp. 382 - 390.
- 최경순, 정현희(1994). 영유아의 보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2 (1), pp. 75 - 91.
- Costin. L. B.(1974). Child Welfare : Politice and Practices, NewYork : McGraw - Hill Book, Co., pp. 32 - 33.
- Coles, R.(1971). The south goes north. Boston : Little, Brown.
- Crockenberg, S.(1987). Support for adolescent mothers during the postnatal period : Theory and research. In C. Boukydis(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pp. 25 - 40). Norwood, NJ : Ablex.
- Elder, G. (1979). Histor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e personality. In P. Baltes & O. Brim(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2, pp. 117 - 159). New York : Avcademuc Press.
- Elder, G., Liker, J., & Cross, C(1984). Parent - Children behavior in the Great Pepsession : Life course ane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 P. Baltes & O. Brim(Eds), Life -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6, pp. 109 - 158). Orlando, FL :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B. A. Maher(W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8 pp. 1 - 47. New York : Academic Press.
- Havighust. R. (1964).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Journal of Neger Education, p. 214.
- Jones, D, C., Rickel, A. U. and Smith, R. L(1984). Maternal child - 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 - solving strategu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 Psychology, 16(3).
- Lempers, J., Clark - Lempers, D., & Simons, R.(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pp. 25 - 49.
- Liebow, E. (1967). Tally's coner : A study of Neger streetconer men. Bostin Little, Brown.
- Lonfellow, C., Zelkowitz,P., & Saunders, E. (1982). The quality of mother - child relationship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 Women and depression(pp. 16 3 - 176). BeverlyHikks. CA : Sage.
- Looff, D. H. (1971). Appalachia's children : The challenge of mental health. Lexington :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Newberger E. H.,(1982). Child Abus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pp. 329 - 335.
- Richard P. Barth and Rober d. Plotnrnick(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olicy, Practice, and Rea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59 - 90.
- Townsend P.(1970). Poverty as ralative deprivation

- in peverty. Inequality and Class Structured by Derty Wedderbur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H. (1974). Parenting in poverty. Btitish Journal of social Work , 4, pp. 241 - 254.
- Zelkowitz, P. (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 Women and depression(pp. 154 - 162). BeverlyHills. CA : Sage.